

연구 모임명	사람사는골목연구회			
연구모임의 성격	도시의 성쇄를 함께 해온 도심골목의 역사성과 진정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골목의 가치증진과 도시매력도 향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			
연구모임 운영기간	2015년 9월 1 일 ~ 2015년 12 월 31 일			
연구모임 참여자	책임연구원 : 백은미 공동연구원 : 금선경, 유영자, 유혜숙, 박기영, 오희숙, 박소현, 노은경, 강영식, 석미경, 임미성			
연구모임 대표자 (책임)	이름	백은미	연락처	
	소속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e-Mail	flow0109@hanmail.net

자료집 순서

1. 지역연구.....지수걸(공주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
2. 공간의 기억을 찾다.....조성일(커피나무대표), 유영자(문화해설사)
3. 향토사학자 윤여헌 선생을 만나다. 오희숙
4. 골목을 말하다.....석미경(루치아의들 대표) 황진웅(토종씨앗모임사무국장)
5. 골목길 연구(산책을 통해본 공주골목).....백은미
6. 골목컨퍼런스사람사는 골목연구회(골목협연구동아리)
7. 별첨자료.....1)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소개 동영상
2) 골목컨퍼런스 동영상
3) 컨퍼런스발제자 자료-백은미(골목협사무국장)
고두환(공감만세대표)
4)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연구동아리 활동내용
5)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활동 자료

지역연구1.

- 공주 원도심의 역사성과 활용 방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지수걸(공주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



“공산성-무령왕릉-정지산유적-고마나루-연미산을 잇는 역사문화 네트워크(시범지구) 조성을 잘 추진하려면, 지금의 연문광장 미나리광 일대, 특히 정지산 인근지역에 대한 면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

공산성에서 무령왕릉에 이르는 저습지, 백제시기는 물론이고 공주중학교가 설립되고(1973년, 그 이전은 공동묘지), 연문광장 일대가 매립되기 이전 시기(1980년대 후반)까지 사람들이 내왕할수 있는 길이 없었다. 정지뱅이 주민들과 성안마을 주민들, 같은 금성동(금성리)이기는 했으나, 제민천이라는 자연경계물 때문에 돌아서 교통 쪽으로 다녀야 했다. 교통의 공주감옥 이북 쪽, 특히 황새바위(계단식 발)부터 공주중학교(공동묘지) 쪽은 사람들의 내왕이 거의 없었던 오지였다. 이는 백제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문광장 일대나 송산소(리) 지역의 경우, 이런 역사성을 잘 살린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막연한 추론이기는 하나, 일제초기 공산성-배다리-전막을 잇는 ‘신작로’가 개통되면서, 또는 1933년 금강 교 공사와 뚝방 공사가 진행되면서, △ 공산성에서 제민천 쪽으로 일정하게 발달해 있던 구릉지(공산성 산줄기), △ 혹은 금강과 제민천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모래톱(자연제방)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회고에 따르면 연문광장 이남의 미나리광쪽(1960년대 말까지 시내버스터미널 쪽까지 미나리광이었다)에 비해 강변쪽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아 미나리광이 아니라 발이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백제시대에 연문광장 일대의 지형이 어땠을지 과학적 추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한말 웅진동 일대는 남부면 지역이었는데, <<여지도서>> 편찬시기와 비교하면, 고마나루 인근에 새로운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다. 1894년 농민전쟁 때, 그리고 1946년 대홍수때 고마나루 인근 마을들, 이러저러한 피해 때문에 동네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많다. ‘마을 지명 유래’ 등을 자세히 조사하면, 공나루 일대 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어쩌면 백제시대에는 공주부 내 즉, 공산성이나 봉황산 일대보다는 공나루 일대에 민가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감영시기 고마나루는 등과 함께 정산이나 예산 방면으로 진출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던 나루였다.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던 나루는 백제대교 인근의 장깃대나루(삼남대로의 주요 통로)였다. 전체 도시발전사(백제 이후 시기)와 관련하여 곰나루 일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진다.

공주 구도심의 골목투어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골목의 이야기자원(遺跡자원, 場所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특히 구술자료 수집과 정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토대로 매력적인 ‘공주의 골목, 가이드북’이 만들어져야 한다. 골목은 그 자체로 박물관이자 기록관이다. 골목의 경관(장소성, 장소감)은 물론이고 그 ‘표정’과 ‘냄새’까지도 자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골목 상권 확대’ 차원의 골목길 재생사업은 골목길 투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골목길 투어 사업’은 ‘골목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개설’, ‘벽화나 꽃길 조성’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골목 상권 확대사업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골목투어 사업’을 ‘구도심 재개발사업’이나 ‘골목 정비사업’ 등과 연계시키는 경우, 사업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골목투어사업’ 자체는 물론이고 골목의 이야기자원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골목길 이야기자원의 수집과 활용, 전문가들보다는 시민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골목 이야기자원 개발 활동은 ‘시민 문화운동’, 혹은 ‘기록 자치운동’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그 성과는 ‘공주 시기기록관’이나 ‘공주학센터’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처럼 골목투어 코스를 개발한다 할 경우 고도 공주는 대구보다 코스의 동선이 훨씬더 짧을 뿐만 아니라 동선(動線) 내의 문화유산도 대구보다 훨씬 볼만 하다. 예를 들면, 공주의 감리회공동체 인근에는 △백제박물관(일제의 백제만들기, 무령왕릉 발굴) △앵산공원(‘벚꽃의 나라’ 공주, 신사터, 4·19기념탑, 황인식기념비) △대추골(6·25전쟁시기 학살터) △국고개(비선거리, 호자이북) △대통다리(홍예교, 중수비) △약전골목(광창당) △관아대로(호서극장 건물) △충청감영터(건물 초석, 포정사, 선화당 건물, 신사터) △큰샘골(궁정, 홍원표 고택) △풍덕원(마곡사, 갑사, 고아원, 선행비) 등등 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공주의 경우 구도심 내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다면 될수록, 공주 골목길의 ‘정체성’이나 ‘원질서’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다. 각각의 사업 과정에서, 공주 구도심내 골목길을 어떻게 ‘보존·육성’하고 ‘재생·지원’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사업의 크기나 범위로 보면, 오히려 공주 골목길, 특히 골목길투어 사업은 ‘고도보존 및 육성’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고도 구역, 문화재 구역,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표조사’라는 걸 한다. 그러나 ‘희소성’이나 ‘이야기성’(이야기자원으로서의 가치)이 풍부한 구옥이나 골목길을 없애거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야말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역사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없애거나 형상을 변경할 때,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백제 관련 역사문화 유산’은 공산성(금서루) - 연문광장 - 무령왕릉 - 국립박물관 - 한옥촌(포정사, 선화당) - 곰나루 관광단지 일대에 국한되어 있다. 구도심쪽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

면 구도심 지역에 산재한 여러 유형의 '근대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도심내에 산재한 각종 근대문화유산을 △ 동선별 △ 구역별 △ 유형별(성격별)로 분류한뒤, 이를 토대로 매력적인 골목투어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금강철교를 건너 (1) 제민천길 (2) 공주대로(금강교-공주고) (3) 관아대로(부고-대통다리-중동초등) (4) 산성시장길 (5) 교동의 아카데미극장 인근길 (6) 반죽동의 구읍사무소 인근길 (7) 중동시장이나 중동초등 인근길 (8) 봉황동 큰샘골 인근길 등을 따라 걷다보면 여러 가지 의미있는 장소와 시설들을 만나게 된다.

구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민천 경관은 공주의 자랑이었다. 맑은 물, 고운 모래와 물고기, 수생식물과 버드나무, 주민의 빨래터와 놀이터 등 제민천에 얽힌 추억담, 오염과 건천화, 제민천 복개 논의 등등은 좋은 이야기자원이다.

제민천에 걸쳐 있는 다리(개천 다리, 돌다리, 외다리, 나무다리, 흙다리, 콘크리트다리)들에 얽힌 추억도 수집 정리해야 한다(다리 이름 및 유래). 웅진교(연문광장, 공주중) → 금성교 → 산성교 → 다리(산성시장 연결 다리) → 교촌교(제세당다리, 버들다리, 쇠전다리) → 봉산교(봉산길) → 반죽교(우체국다리) → 대통교(홍예교, 석교) → 중동교(한일당다리) → 제민천교(제일교회) → 오거리다리(선화교?).

왜 그 자리에 다리가 생겼을까? 어떤 사람들이 다녔을까? 해당 다리의 특정한 용도와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다리 형성의 역사, 다리밑 피서와 거지굴.

제민천과 '금학동 수원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투어코스 개발(그림지도 및 가이드 북 제작, '제민천 이야기 전시관'), 제일 먼저 해야할 사업이다. 연문광장의 웅진교(황새바위) 인근에서 시작해서 산성시장 → 중동시장 → 대통다리 → 오거리 → 금학동 수원지(제민천 이야기관)로 이어지는 동선, 물길을 따라가면서 천변 풍경이나 공주 구도심의 여기저기를 기웃대는 산책 코스, 가장 경쟁력 있는 코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주갑부 김갑순도 많은 삶의 흔적과 매력적인 이야기자원들을 남겼다. 구도심에 산재해 있는 △ 반죽동 245번지 김갑순 고택 △ 출신과 치부내력(내장원경 김윤환 송덕비) △ 공주 아전(衙前) 동맹파업사건과 만인산 사건 △ 배다리와 차부 △ 중동시장과 극장(금강관) △ 성안마을과 쌀창고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은 골목투어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공간의 기억을 찾다.



대추골의 추억(1)

옥룡동에 대추골이라는 마을이 있다. 대추나무가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고, 먼 옛날 큰(大)도둑의 우두머리(酋)가 살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 마을은 20여 가구가 사는 전형적인 도시 변두리 마을이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농촌과 진배없었다.

지금은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복개되기 전의 그 작은 내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다. 물론 현재처럼 집이 많지 않았던 예전 얘기다. 필자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의 그 시내는 산간벽지의 냇물처럼 맑았다.

당연히 마을에는 수도 시설이 안 되어 마을 공동우물을 사용하던 때라 물이 귀했다.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과 하숙하는 학생들이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이 냇가로 양치와 세수를 하러 나왔다. 세수를 하다가 그냥 그 물을 마시기도 했다. 여름이면 인가가 먼 상류에는 마을 여자들이 목욕을 했고, 아래에서는 남자들이 미역을 감았다.

어느 가을 이른 아침,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그 즈음에 냇가에 일찍 세수를 하러 나갔다가 커다란 참게 한 마리가 돌 밑에 엮드려 있는 걸 발견하여 잡아다가 그 날 저녁 찌개를 끓여 먹은 일도 있었다.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대추골의 추억(2)

대추골에서 수원골로 넘어가는 고개 못 미쳐 작은 방죽이 있다. 이 방죽 왼쪽으로 밭이 있고, 그 밭 북쪽으로 가면 작은 골짜기가 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딸나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나 가끔 밭길을 두는 곳이다.

이 골짜기 입구에는 여름 장마철이면 비가 온 후 물이 흐르고, 그 가장자리에 산딸기나무가 많았다. 필자의 집에서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소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끝나면 이곳으로 소가 먹을 풀(‘꼰’, 충청도에서는 ‘깁’이라고 함)을 베러 자주 갔다. 꼰 베러 가서 배고픈 김에 달콤한 산딸기를 많이 따 먹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던 마을 어른이 거기 산딸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위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학살되어 미처 찾아가지 못한 시체가 산딸기 거름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육이오 전쟁 때 좌익과 우익이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학살했다고 한다. 그 현장에서 천행으로 살아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한다. 가족들이 시체를 찾기 위해 몰려들었고, 가족이 없거나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이다.

간혹 후미진 그 골짜기에 올라가 보면 다른 곳과 달리 역새, 풀들이 유난히 거무스레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시체들의 영향이 아니었나 싶다.

그 어른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거기 탐스럽게 익어가는 산딸기를 먹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그 산딸기뿐이겠는가.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남의 시신의 흔적이 안 들어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그런 자연스러운 순환의 연속인가도 싶다. 그게 바로 역사이자 우리 삶 자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대추골의 추억(3)

도시 번두리였던 대추골은 반은 농촌, 반은 도시의 마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소규모 농사를 자영 혹은 소작으로 짓거나 아니면 시내로 나가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많았다.

그 중에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김 씨 할아버지는 특이한 일을 하셨다. 평생 노동으로 허리가 굽으신 그 할아버지는 아침이면 거름지계를 지고 시내로 나가서 주택의 인분을 치워 주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담뱃값 정도의 사례비를 받으셨다.

그 인분을 통에 담아 힘겹게 지고 마을로 오셔서는 미리 부탁받은 집의 밭에 뿌리셨다. 물론 발주인으로 부터 약간의 수고비를 받았는데, 그 액수는 미미했던 것 같다. 인분을 치워주는 집과 발주인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으니 양쪽에서 받는 셈인데, 그 분의 살림살이는 늘 쪼들리는 느낌이었으니 말이다.

요즘은 거개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 예전 인분 치워주던 일은 까마득한 얘기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게 불과 40여 년 전 일이다. 우리 삶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걸 이런 데서도 실감하게 된다.

늦게 얻으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던 그 할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인분이 가득 찬 통 두 개를 지고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분의 아드님은 현재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며 살고 있다.

대추골의 추억(4)

대추골 사시던 분들 가운데 토박이처럼 오래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다. 지난 글에서 썼던 김 씨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전 씨 아저씨, 나 씨 할아버지, 황 씨 아저씨, 반장을 하셨던 임 씨 아저씨, 그리고 필자의 선친 등이 그런 분들이다.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지만, 그 분들은 새로 이사 오는 동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마을 발전을 위해 늘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다. 그 중에 전 씨 아저씨는 마음씨 좋고, 우스갯소리도 잘 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메이커쯤 되셨다.

그 분 역시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아침이면 지계를 지고 차부(지금 안경나라 있는 곳, 예전 이학 식당 자리 옆)에 나가셔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짐이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져다 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을 하셨다. 지금처럼 택시 같은 게 보편화되지 못했던 시절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하시면서도 늘 여유가 있으셨고, 마을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면 항상 앞장을 서시곤 했다. 또한 자녀들을 잘 키우셔서 현재는 그분 자제 분이 시내에서 꽤 규모가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때보다 여유가 몇 갑절 더 좋아진 요즘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이 쪼들리며 사는 걸 보면 전 씨 아저씨 같은 여유를 가진 분들이 더 생각난다. 역시 돈 많은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닌가 보다.

대추골의 추억(5)

60년대 대추골은 2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리 큰 마을도 아니고, 큰 공장이나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은 소규모의 농사를 짓거나 학생들 하숙을 치며 살았다. 자연히 마을의 주거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전기 사정도 안 좋아 대부분의 가정에는 일반선이라고 하는 전기를 썼는데, 밤 12시만 되면 전기가 나갔다. 부잣집에서 쓰는 특선은 밤새도록 전기가 들어왔다. 학생들은 12시 이후에도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석유 등잔이나 램프 불을 사용했다.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개는 콧구멍에 검정 그을음이 남아 새카맣게 되곤 했다.

마을 진입로도 좋지 않아 박물관에서 들어오는 길은 냇물 양 옆으로 논과 밭이 이어지고, 그 논둑길을 걸어 들어와야 했다. 비라도 내려면 논둑길이 젖어 운동화에 진흙이 달라붙곤 해서 집에 와 그걸 빨아 말리기 위해 애를 먹었다. 당연히 자동차는 들어오지 못했다.

마을 반장이었던 임씨 아저씨와 필자의 선친 등 대표들은 그 논외의 소유주인 황 교장님 댁을 찾아가 사정을 해서 토지 일부를 회사 받아 길 확장 공사를 했다.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던 때라 마을 사람들이 부역 형식으로 지게를 지고 나와 도로를 넓히는 일을 하셨다.

시내 사람들이 먹는 수도물 또한 마을에는 들어오지 않아 마을 대표들께서 상의하신 결과 수원골 넘어가는 곳에 샘을 파고, 길을 따라 플라스틱 관을 묻어 자연적인 고도 차이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셨다. 이로 인해 새벽마다 수량이 부족한 마을 공동 우물을 두고 벌여졌던 물 긴기 경쟁이 사라질 수 있었다.

몇몇 마을 어른들의 이런 앞서가는 생각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주었는데, 혹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게 아마도 새마을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추골의 추억(6)

20여 가구의 대추골 집들은 대개 초가집이었다. 그 중에 딱 한 집이 기와로 지붕을 해서 그 집이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말할 때 기와집이라고 지칭했다. 박 씨 성을 가진 분이 살았는데, 마을 입구 시내의 왼쪽에 있었던 그 집은 최근 가서 보니 헐리고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 집 바로 옆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매립이 되어 흔적조차 없고, 그 위에 집에 들어서 있다. 그 연못에 여름이면 연꽃 몇 송이가 피었고, 그 연못에 이어져 있는 낡은 가옥에 사는 분은 집안이 매우 어려워서 그 가족 중에 어느 분이 작고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추렴으로 고마나루 쪽 공동묘지에 장사를 지내주기도 했다.

나 씨 아저씨 댁은 검은 콜타르를 칠한 함석지붕이었는데, 일자집으로 집터가 매우 넓어 집안에 밭을 일구어 약초 같은 걸 재배했고, 과일 나무도 여러 그루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집에는 측면에 방을 몇 개만 들어 월세를 주기도 했다.

동쪽 골짜기 맨 꼭대기 집에는 당시 공주사대 서무과장이 살았다. 나름대로 마을에서는 유일한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 집은 꽤 고급스러운 양옥이었고, 꽃을 많이 길러서 밖에서도 그 꽃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 아래 집에는 임 반장이 살았고, 그 아래 집에는 애국자로 불리는 노부부가 살았다. 문홍범 선생과 이 씨 성을 가진 할머니(성함은 잘 기억 안 남)가 그분들인데, 3.1절 같은 때 여러 사람이 모여 마당에서 태극기를 걸어 놓고 행사를 했던 걸 본 기억이 있다

대추골의 추억(7)

전형적인 도시 변두리 마을이었던 대추골은 반농반도의 복합형(요즘 말로 하면 융합형) 마을 공동체였다. 도시 기반 시설이 안 돼 있고, 주요 생업이 농업이었고, 그러면서도 생활 근거는 도시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60년대 대추골은 차량 통행도 안 되는 오지와 마찬가지로였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중심 길은 현재 개울을 포장하여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였다. 그 외에 동쪽으로는 수원골로 넘어가는 작은 고갯길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현재 영명고 교정을 가로질러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있었다. 고개가 꽤 가팔라서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 아랫길로 우회해야 했다.

그 고개 마루(지금 영명고 건물이 있는 곳)에는 해방 후 충남지사와 영명고 교장을 지낸 황인식 교장 선생님이 있었다. 큰 나무 속에 서양식 구조로 된 그 집에는 사나운 개가 있어 지나는 동안 조심해야 했다.

남쪽으로는 작은 샛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넘어 선교사들이 살았던 붉은 벽돌 건물을 지나 중학동 쪽으로 갈 수 있었다. 그 건물은 이후 공주교대 여학생 기숙사로 사용되다가 한때 공주사대 교수들의 숙소(운하대라고 호칭되었음)로 사용되기도 했다. 필자는 주로 그 길을 이용하여 당시 공주고와 함께 있던 공주중학교를 다녔고, 저녁 무렵 발독에 난 소먹이용 풀을 베러 다니기도 했다. 그 길은 지금은 복토되어 흔적조차 없고, 영명고 체육관과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동쪽으로는 산비탈에 있는 밭을 경작하는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작은 샛길이 있었다. 그 산길을 넘어 서면 현재 공주대 옥룡캠퍼스로 이어지는데, 당시에는 거기가 모두 논이나 밭이었다. 그 논가에 타이어를 태워 그 그을음으로 먹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 가끔 대추골까지 그 연기가 넘어오기도 했었다.

대추골의 추억(8)

대추골에 사시던 어른 가운데 황 씨 아저씨가 있다. 이 분은 황 교장 선생님과 가까운 집안 분이신데, 마을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사셨다. 또 주변에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필자의 집에서도 그 분 소유 땅에 집을 짓고 1년에 얼마간의 사용료(도조, 충청도에서는 도지라고 함)를 지불하며 살았다.

이 분은 자신 소유의 밭에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지게로 짐을 져 나르며 농사를 짓던 시기에 세 발 달린 수레를 이용하여 밭에 거름을 내거나 수확물을 운반하곤 하셨다. 우리들 눈에는 그게 매우 신기해 보였다.

그 분 자녀 중에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분이 있어 그 분이 귀가하게 되면 바로 옆집이었던 필자의 집에서도 뻥뻥 보이는 야외에서 고기를 굽고 밥상을 차려 회식을 하는 걸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다.

동네 반장 일을 하셨던 임 씨 아저씨는 자그만 키에 다부지게 생긴 분이셨다. 늘 낡은 자전거를 타고 현재 옥룡 삼거리 쪽에 있던 동사무소를 오가며 마을 사람들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 어느 날인가 그 자전거가 자동차와 충돌하여 운명하셨다.

임 반장 어른의 큰 자제는 필자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 동문 친구다. 현재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하면서, 시를 쓰고 낭송하는 유명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을 방송에서 가끔 들을 수 있다.

대추골의 추억(9)

지금은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가 일상화되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시대이지만, 60년대 대추골에는 당연히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동네 부잣집으로 알려진 김 씨 할아버지 네를 비롯해서 몇 집에 라디오가 있었을 뿐인데, 그 라디오라는 것도 몸체보다 큰 배터리를 검정 고무줄로 묶은 그런 것들이었다. 최신식이라고 하는 소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당시 쌀 두 가마 값에 육박했으니 웬만한 집에서는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라디오가 없는 집을 위해 일명 ‘스피커’라고 불리는 게 있었다. 삐삐선이라고 하는 전깃줄로 연결하여 방송을 중계해 주는 시설이었다. 기둥에 그 스피커를 매달아 놓고 식구들이 다 모여 앉아 중계되는 방송을 들었는데, 볼륨 조절 장치만 있어 원하는 방송국 선택은 할 수가 없었다.

당시 임택근 아나운서나 이광재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축구 경기 중계방송이나 김일이 출전하는 레슬링 경기가 있을 때면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앉아 들었다. 연속방송 드라마도 기다렸다가 듣는 인기 프로였다. 그때 최고 인기 프로는 명사들이 출연하여 진행하는 ‘재치문답’이나 ‘백만 인의 퀴즈’ 등이었다.

스피커는 국영방송만 나오기 때문에 민간 방송에서 중계하는 스포츠 경기를 듣기 위해서는 라디오가 있는 집에 가야 했다. 동네 사람이 많이 모여 마루와 마당에 앉아 프로 권투 경기중계를 들으며 같이 흥분하기도 했었다.

60년대 하숙집 이야기

유영자(문화 해설사)

공주와 내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60년대이다. 그때 나는 청양이 고향이라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오게 되면서이다.

어찌되었던 그러고 보니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주에 살게 된 셈이다. 나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주만 해도 도시여서 어리둥절한 시절이었다. 봉황동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은 할머니 혼자서 하숙생을 열 명 이상이나 데리고 밥을 해주셨다. 그 집이 있는 근처에선 공주사범대학이 있었고 부설중·고등학교가 있던 곳으로 말하자면 변화가를 약간 벗어난 주택가였다.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아루스사장 옆집 옆집이었다. 우리 하숙집 풍경은 오랫동안 할머니께서 하숙생들을 돌봐주셨기에 학생들 사이에는 나름 소문이 난 집이었다. 남자 대학생 3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그리고 여자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있었는데 우리 여자 셋 중학생은 공주여중 1학년이었고 공주가 낯선 타양이고 하숙집의 막내였다. 가끔씩 밤에는 울리기도 했는데 들키면 대학생 언니들이 귀엽다 하시며 자기들 방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곤 하였다. 또 그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문밖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었다. 큰 용기에 인분이 다 차면 인분차를 불러 돈을 들여 퍼야 했으니까 식구들 외에는 쓸 수 없게 했던 것이다. 할머니께서 우리 방에는 요강을 들여 주셔서 밤에는 요강에다 소변을 보고 아침에 세수하러 밖으로 나갈 때 들고 가서 하수구에 버리곤 했다.

우리 집 앞에는 커다란 유도체육관이 있었다. 저년 늦게까지도 유도를 배우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지금도 유도하는 학생들이 지르던 함성이나 시합을 하면서 쿵하고 바닥에 떨어질 때 나던 소리들이 생생하다. 그리고 사범대학 앞쪽에는 박문사 그리고 공문사라는 커다란 문구사가 있었고 대학 정문 앞으로 곧장 나가면 봉황서림이라는 책방이 있었다.

제민천 다리를 건너면 우체국 앞쪽으로 상가가 나란히 있었는데 그 중에는 파리미용실도 있었다. 우리랑 같이 있었던 공주대학교 언니들은 가정과 선후배였고 경기도와 충북 청주가 고향이었는데 아침마다 세수하고 화장하고 파리미용실에 들어서 머리를 손질하고 하이힐에 스커트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학교를 다니셨다. 마치 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 같았다. 미장원에 손님이 많았던 날은 학교에 늦는다며 부랴부랴 서두르셨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언니들은 하루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본다고 해서 적잖이 부러웠다. 우리는 그때 열두세 과목을 한 이틀 정도에 보았으니 내용에 상관없이 부러울 수밖에.

대학생 오빠 중에 연애하는 오빠도 있었는데 데이트했던 언니를 우리 하숙집까지 데리고 왔었고 우리들이랑 둘러앉아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그 봉황동 집에서 3년을 꼬박 살았다. 할머니께서 워낙 좋으셔서 한번 그 집에 들면 나가지를 앓고 졸업 때까지 있었다. 하숙비는 쌀값을 계산해서 드렸는데 5말이나 6말 정도를 드렸다. 우체국으로 하숙비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지만 하숙비를 드릴 때쯤이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면서 드렸다.

그 집에 살면서 공주제일감리교회에 출석했다. 그 교회는 빨간 벽돌 건물이었고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서 교회본당 바닥이 마루바닥이었는데 토요일마다 기름칠을 해가며 청소를 하곤 했었다. 바로 앞에는 공주시교육청이 있었다. 그리고 교회마당 한쪽에는 서양식 자그마한 하얀집이 있었는데 공제위원이었고, 우리 친구 할아버지셨고 제일교회 장로님 이셨던 양재순 장로님께서 운영

하셨던 병원이었다. 장로님의 부인께서도 장로 직분을 받으셨는데 두 장로님은 항상 온화하셨고 부부사이가 매우 좋으시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후일 알게 되었지만 공제위원은 공주시 양의원 1호였다고 했다.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해도 공주에는 미나리짱이 있었고 겨울에는 미나리짱을 얼려서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과 썰매를 타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은 없는데 건물은 많이 변하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으니 변할 것은 변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립고 그 때 자주 갔던 건물들이 생각난다.

제민천가에도 쪽 천막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이 장사를 했었다. 우리 친구 어머니도 제민천가에서 호롱불을 켜시면서 과일 장사를 하셨다. 그때는 제민천 뚝방이 상당히 높아보였다.

언제 한 번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웃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그립고 없어지는 것에 마음이 걸리고 하는 것을 보니 나도 나이가 드는 모양이다.

난 60년대에 공주에서 학교를 다녔던 것이 자랑스러웠다. 내 고향은 시골이었지만 공주는 도시였다. 그것도 교육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향토사학자 윤여헌 선생을 만나다.



... 오희숙(골목협회원)

역사성에 대해

1. 질문

- 공주 원도심의 시대별 중요성
- 조선시대 공주목에 대해

“공주목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현재 공주의료원 일대가 공주 목터였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1700년대에 조선을 팔도로 나누고 한 도에 관찰사를 설치하게 됐다. 그래서 공주가 충청 감영으로 됐다. 그 자리가 사대부고 터이다.

목사에 대해 명단이 있다.“

- 충청감영터에 대해

“조선왕조는 전국을 8도로 나눠 관찰사를 배치했으며, 충청도관찰사는 오늘날의 충청남·북도가 관할 지역이었다. 관찰사는 병권은 물론 경찰권·사법권·징세권(徵稅權)도 아울러 갖고 있어 사실상 한 도내에 있어서 전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지위이다.

거기에도 감영소재지의 목사(牧使)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관찰사의 권한은 크게 확대됐다. 그리고 관찰사는 고을을 순행했는데, 현 충청남도 일원의 순행을 우순행(右巡行), 충청북도 일원의 순행을 좌순행(左巡行)이라 불렀다.

공주가 64년간 백제의 왕도였다는 것을 곧잘 내세우면서도, 고려·조선조에 와서는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 감영의 소재지가 되면서 크게 번창했던 고을임을 자랑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충청감영은 현재 공주사대부고 자리에 있었다. 건물은 한일합방 당시 없어졌으며, 해방 후에는 그 자리를 학교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농업학교와 여학교가 들어오고 그 후 독립 사범대(공주 사대 전신), 사대부고가 들어왔다.

웅진동에 ‘선화당’과 ‘포정사’를 재건했다하나, 위치선정과 고종의 미비로 인해 한 도내의 최고권 부로서의 위엄은 찾을 수 없고, 흡사 ‘국궁장’의 부속건물처럼 돼 버렸으니 두고두고 구설수를 면

할 수 없게 됐다.“

2. 질문

-원도심 골목의 역사적 보존가치(조선시대 가로도가 보존된 유일한 곳이란 이야기 찾기)

“구도심은 감영과 목사터가 있다. 구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고증을 통해 복원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복원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원을 하면 구심력을 가질 수 있다.

나주, 원주 등은 감영터가 남아있다. 각 처에 남아있는 감영터 혹은 목사터를 참고로 해서 복원해야한다.

또한 봉황초등학교 뒤편 골목이 약령시장 터이다. 공주가 대구와 함께 1년에 두 차례 약령대시(藥令大市)가 열려 성황을 이뤘음을 전해 주는 기록이 있다.

약령시는 일정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한약재 시장으로, 서울의 ‘경동시장’이나 대구의 약령시라면 몰라도 ‘공주약령시’라고 하면 대단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 공주는 대구와 함께 1년에 두 차례 ‘약령대시’가 열려 성황을 이뤘음을 전해 주고 있다.

일제강점하의 기록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주 약령시의 역사는 꽤 오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약령시의 개장이 효종(1649~1959)때부터라고 하니, 공주 약령시도 17세기 중엽부터 확립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공주의 시가지는 일제 때 즉 1900년 초에 시가지 정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옛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노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사대부고 앞길에서 교육대학방향으로, 옛 알스사진관에서 50미터거리를 ‘약전골’로 불렀다고 한다.

중앙의 전의감(典醫監)에서 파견되는 심약은 의술에도 능한 사람으로서 그의 영향력은 이 고장에 많은 명의를 배출했다. 봉황동에 침술로 유명했던 박태연·백창기씨, 산성동의 권재수씨 그리고 중동의 광창당 한약방 김락현씨 등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사대부고자리에는 ‘선화당’을 중심으로 양쪽편 동쪽에는 관아 건물이 즐비했고, 봉황산 남쪽으로도 ‘진리청(鎭吏廳)’, ‘영선고(營繕庫)’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령시장은 관아의 외곽 지대에 해당된다. 지금은 직선도로가 곧게 뻗어 있지만 옛날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었을 것이다.

대통사지터는 지금 망해 났다. 전해오는 말로는 현재 공주노인종합복지관 일대가 대통사지 터라는 것이다. 발굴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냥 3층 짜리 건물을 지었다.

대통사가 복원된다면 구도심은 살아날 것이다. 백제시대 최초의 사찰로 대통사하고 수원사가 알려져 있다.“



와서 보라! 참 아름다운 공주를- 행복한 골목 산책 -

석 미 경 루치아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장, 루치아의 딸 대표)

내가 공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가톨릭신자인 나는 황새바위 순교성지와 100년 이상의 세월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중동성당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서 무엇보다 행복하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고, 금강과 계룡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공주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주에는 아직도 우리들을 추억과 그리움 속으로 안내하는 옛날의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집 루치아의 딸이 위치한 곳도 공주 원도심 속 엄마의 자궁 속처럼 아늑한 골목길 안쪽이다. 그런 까닭에 루치아의 딸이 축성식을 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외지에서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단번에 길을 못찾고 헤매기 일쑤이다.

남편과 나는 지금처럼 올레길 열풍이 불기 훨씬 이전부터 산책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서울에 살면서 늘 용돈이 부족했던 연인 시절 “데이트는 같이 걷는 것”이라는 남편의 말에 공감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서울 삼청동 뒷길과 감사원 가는 길, 경복궁 앞 불란서문화원, 인사동 화랑골목, 신촌과 이대 앞, 명동과 종로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수히 걸어 다녔다. 특히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책방이 우리들의 고정적인 데이트 코스였고 그 덕분에 나의 미의식과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밤늦도록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걸어 다녔고, 큰 문화적 충격과 감동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하였다.

공주로 이사와서는 집주변과 공산성, 산성시장, 황새바위 성지, 제민천 주변을 주로 산책하게 되었는데, 그 길을 걷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특별히 <원도심풍경사진첩>을 만들기 위해 산책하던 근대문화유산길에는 솜틀집, 얼음집, 파리미용실, 중흥자전거상회 등등의 오래되고 낡은 가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정겨웠다. 그리고 내가 공주에서 아주 좋아하는 공간인 ‘시간이 정지된 공원’과 <공주역사영상관>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는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에 격주로 만나 골목을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도 했다. 사무국장이 손으로 직접 그린 골목지도를 들고 산책을 나설 때면 마치 우리들이 동네원정대가 된 것처럼 들뜨기도 했다.

골목산책을 하면서 동네의 사계절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사람 사는 냄새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오래된 것, 버려진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골목 안에 있는 빈 집들을 보게 되면 안

타카운 마음에 그 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고 공산성 높은 계단벽을 오를 때는 그 벽을 활용해 야외갤러리로 꾸미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낮은 철조망 담장 안으로 빨갛게 익은 석류를 보았고 나팔꽃, 채송화, 맨드라미, 족두리꽃도 만났다. 도둑고양이와 강아지도 친구가 되어주었고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벗이 될 수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들은 까치발을 들고 남의 집 뜰 안을 엿보기도 했다.

모든 회원들이 아끼는 공간은 <공주풀꽃문학관>이었다. 고치기 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회원들은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무척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그곳은 현재 나태주 시인이 손수 방문객을 맞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주의 명소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산책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네를 자세히 보게 되었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만의 빛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소소한 기쁨을 알게 되었다. 골목산책의 백미는 담벼락에 써있는 낙서를 읽는 것이다. 대부분 욕설이거나 위트 있는 짧은 문구였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되어주었다.

또한 우리들이 함께 한 산책코스를 바탕으로 산성찬호길, 근대문화유산길, 추억의 하숙촌길이라는 세 가지 코스를 공주골목길 산책코스로 만들었고, 그 코스들을 산책하면서 찍었던 사진으로 옛날 직물공장 관사에서 골목사진전을 열었다. 그 당시 관람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런 일들은 결코 혼자서는 해 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니 더 뿌듯한 느낌이 든다.

골목길은 이제 획일화된 현대 도시에서 대안적 문화공간이자 여유와 휴식을 제공하는 제3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골목길의 인기를 반영하듯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발로 찾은 골목길 명소 30선>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걷고 싶은 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를 고도 공주에서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본과 물질이 포화를 이루는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골목길에 주목하는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인 성찰이 꼭 필요한 세상이다.

또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가구라자카 거리'처럼 전통건물과 경관을 보존하고 거리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목길의 가치를 공감하고 보존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것만이 골목길이 도시공동체를 지켜주고 오래된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골 목 길

나 태 주

골목길은 마음이 흘러가는 길
오래 묵은 이야기가 흘러가는 길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린 날
젊은 시절의 숨결이 있고
우리가 두고 온 옛날이 있는 길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면
불이 붉은 계집애 머슴애
왜 이리 늦게 찾아왔느냐고
왜 이리 변했느냐고 투정하면서도
부드러운 손으로
약수를 청해올 것 같은 길

친구야 친구야
살아가다가 가끔은
큰 길에서 빗겨나
골목길에서 보자

골목길에서 보면
하늘의 구름도 정답고
와락 바람도 가슴을 열고
다가오지 않겠니?
다시 한 번 우리도
젊은 시절의 우리로
어린 시절의 우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니?





대추골 골목과 동네 텃밭들

황진웅(토종씨앗모임사무국장)

구 주소로 옥룡동 대추골은 큰 골목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옛적 농경을 하며 모여 살던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며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다.

골목 밖 큰 길은 도시, 골목 안길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아직도 대문 앞에 골파며 상추며 작은 쌈지 텃밭과 집안에는 또 하나의 텃밭과 꽃밭 그리고 집 한켠에는 거둔 씨앗을 다듬어 보관하는 진솔하고 정겨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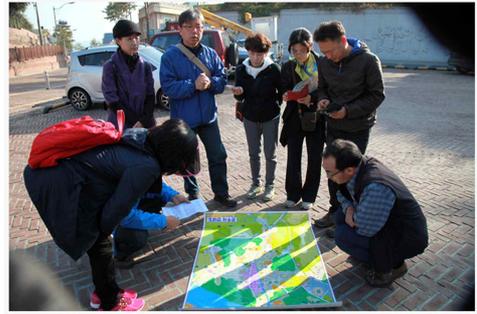
이 모습을 골목 밖 세상으로 몇 발자욱만 끌어내면 그야말로 생활 문화요, 어떤 조형과 치장에 의한 도시 미관 사업보다도 훌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오는 봄에 옥룡동 고개 마루 텃밭과 큰 골목. 안 골목의 텃밭, 쌈지텃밭에서 씨앗을 서로 나누고, 키운 야채와 콩, 꽃을 동네 어귀 큰 길가에서 팔아 할머니 쌈지 돈과 할아버지 막걸리 잔 값을 벌수 있게 하는 생활농사 시민운동과 마을 단위 작은 행복나눔 생협 매장을 만들기 위해 이 겨울 작은 사무실에 황토 흙을 바르고, 마을 어르신과 짜투리 땅을 찾아 나서 본다.



골목길 연구(산책을 통해본 공주골목)

...백은미(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사무국장)



첫골목산책이야기— 그어설픈 산책의 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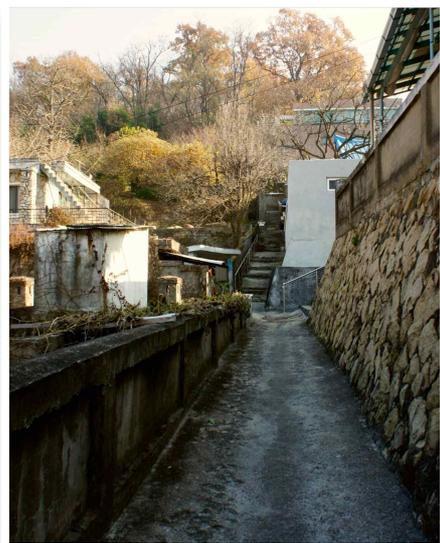
산책으로 시작한 골목 돌아보기 그 준비를 위해 이른 가을 아침 네명이 만났다. 우리는 충남역사박물관 앞에서 출발 그림을 그렸다. 왼쪽으로 돌아 대추골 가는 골목입구에는 40년 넘게 작은 구멍가게가 여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었다. 가게안 물건들은 둘러보는데 사람에게 사람살이를 생각하게 한다. 대추골 가을이 깊은 골짜기여서 라고도 하고 대추가 많은 곳이어서 라는 동네이름기 원이야기가 있는데 둘다 어울리는 마을이다.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인데도 이곳은 공주시 중심지와는 한 십년은 더디 가는 시계를 갖고 있는듯 하다. 오래된 담장에 노인의 검버섯처럼 세월이 덮여있다.

큰골목에 작은 골목이 핏줄처럼 이어져 있는 이동네에는 직선고개를 넘으면 산길을 따라 옥룡주공이 나오고 오른고개를 따라가면 영명학교와 선교사의집이 나온다. 또 길다란 골목을 따라 가다 오른 작은 골목으로 앵상공원이 보인다. 예전에 벚꽃이 많아 벚꽃놀이 하던 전망좋은 원도심의 중심공원이었던 곳이 그사이 벌목이되고 일본소나무가 가득하다. 한때는 불켜고 꽃놀이도하고 4.19.기념탑에는 힘깨나 쓰던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었던 곳이란다.

그렇게 앵상공원에서 가을별을 쏘이고 충남역사박물관쪽으로 골목길을 따라 내려왔다.

햇살좋은 시월어느 맑은날 아침 첫골목산책을 시작했다. 가을 별이 길게 드리워진 대추골골목을 따라 걸으며 함께 이들의 가슴에는 어떤이야기들이 되살아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사진속의 이 장면들이 어찌면 조금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어서인지 한 장이라도 더 눌러냈는지 모르겠다. 낙서 가득한 골목담장에 널려있는 이불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과거속으로 들어가본다.





(대추골산책 자료사진)



두번째산책은 11월이다.

가을이 깊어가느라 주변이 온통볼거리가 가득하다. 이번산책은사대부고 정문앞에서 모여 출발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부고 뒷문으로 나가면 넓은 구법원 주차장이 있다. 그정면으로 봉황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노랗게 온 머리를 염색한 키 큰 은행나무가 네그루 서있다. 그사이로 작은 오르막길이 보이고 오르막에 오래된 작은집이 보인다. 몇 번이고 그 집앞 낮은 오르막 난간이 정겨워 자주 와본 곳이다. 드디어 그집구경을 하게 되었다.집안을 채운 오래된 시간의 향이 가슴가득 벅차오르게 한다. 함께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공간을 찾아본 감동이 이어진다. 고가의 품격을 느끼며 옛 주인이 남겼을 다락과 작은 가구들이 눈을 잡아끈다. 목조주택의 내부는 단아하다.

그집의 뒷마당에서 이집의 나이를 생각하기 도하고 미래모습에 바람을 담아 이야기 한다. 봉황동길 큰우물을 지나 예술가의정원을 둘러보았다. 옛주인은 공주 5대부자 오모씨였단다. 이제는 다른 주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류동현 화가가 집을 보존하고 어루만지며 세들어 살고 있다. 내부의 나무벽이 검다. 검은색이주는 단정함속에 고집이 느껴진다.

마당에 화가가 직접 만든 작은 연못엔 수생식물이 곱다.

골목을 따라 내려가는데 하숙이야기들이 무수하게 펼쳐진다. 부고.공주고.교대등 타지학생들이 자취와 하숙하던 곳이어서 집들이 마당끝까지 방을 달아낸 것이 보인다.

예전에 하숙집의 사연들은 저마다 다를수도 공통된 부분이 많을수도 있다. 골목에서 던진 작은 돌맹이들이 남긴 자국들이 여전히 시간의 지나도 남아있다.그자국마다 무수한 이야기들과 사랑이 또는 두려움이, 추억이 담겨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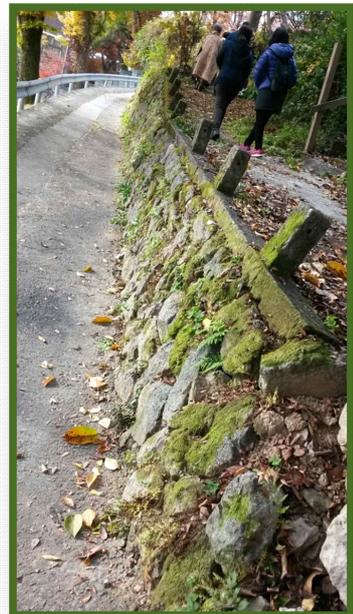
학창시절이야기들은 누군가 살짝콧 찢러만 주면 줄줄 이어진다.

하숙골목들은 여전히 좁다.3미터이내의 좁은길이 구불거리며 유혹한다.

그굽은 다음골목엔 곡선으로 그리는 여유가 느껴진다.

사랑스럽다. 이야기들이 주저리주저리 이어질 것만 같은 하숙골목길가에서 이야기책 한권이 벌써 만들어진것 같다.49년된 중동분식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두번째 골목산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봉황동 산책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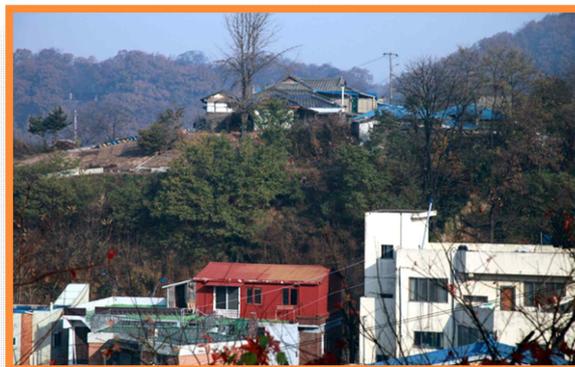
세번째산책—산성동고갯마루길에서 방향을 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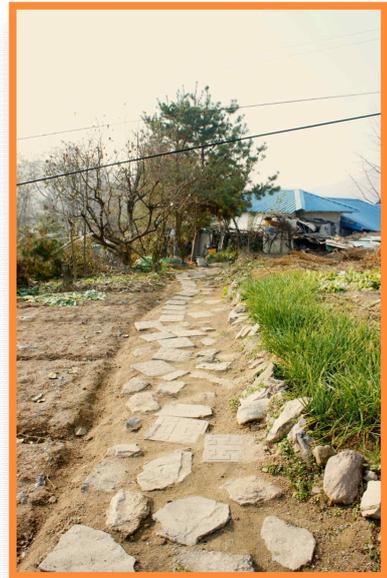
미리 산책전에 답사라고 와 본 길인데 이번산책은 어렵다. 도무지 이 길들의 방향이 감이 안 온다. 윤정형외과 앞에서 출발해 고갯마루를 넘으려 하는데 최 팀장이 왼쪽으로 이어진 흙길로 잡아끈다. 콘크리트길만 남아 있을 곳에 흙길이 있고 그 흙길은 양쪽으로 낮은 언덕을 끼고 돌아가게 한다. 그 길가에 문득 멈춰선 우리는 가슴에 와 닿는 정면의 찬바람이 열린 반갑다. 한쪽의 정경. 그 느낌을 사진으로 담기에는 아쉬울 것 같은 공주의 늦가을과 초겨울이 만나는 원도심의 모습이 한눈에 담긴다. 산성시장을 내려다보며 골목으로 접어든다. 막다른 골목일 것만 같은데 골목 끝에서 직각으로 이어진 또 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길을 따라 내려간다. 한사람이 지나갈만한 좁은 길가에서 마주 오는 이를 만난다. 엇갈려 지나가는 눈길 속에 이 길의 쓰임이 궁금해지고 여기를 오르내린 사람들의 바쁜 살아가 어떠했을까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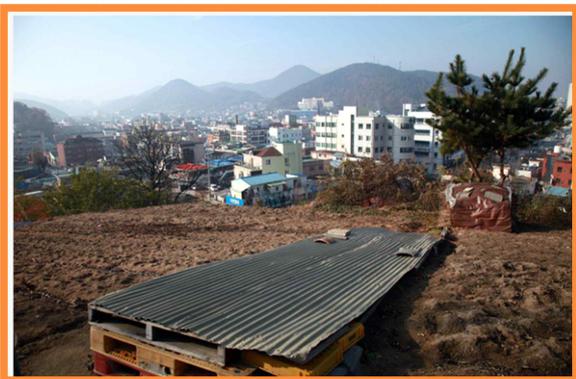
산성시장으로 이어지는 길로 가지않고 산성공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다보니 낯익은 길목에 선다."찬호길" 월드스타 박찬호야구선수가 자랐던 길이고 살았다는 집이 보인다. 이 길을 이야기로 만들어 박찬호선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체험코스로 보여주면 좋겠다며 다들 하나씩 제안들을 내놓는다. 수행과제를 풀어가듯 박찬호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월드스타로 이어지는 과정의 이야기를 만나는 체험을 만들어보자며 벌써 이야기의 반은 이루어진 듯 크게 웃으며 걷는다. 걸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해서 이어지는 산성동길은 겨울에는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든다. 하필이면 굽높은 신발을 신고온 수호천사님이 영 걷는 게 불편해보인다. 눈오거나 미끄러우면 잡고 가라는 골목난간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른다. 이 길은 산성시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장사를 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른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살게 되어 오밀조밀한 모습이다. 좁은오름 골목가에 자전거가 위태롭게 세워져있다.

그 골목가에서 무사히 완주한 기념으로 사진한장 찍고 삼성빌딩사이로 빠져나와 길 건너 30여년 된 진미우동집에서 주인장의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인다.

막걸리는 아마 누군가 주머니를 털어 거하게 사준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산성동 산책 자료사진)



몹시 추운겨울 12월 선달에 중학동 고담길을 갔다.

매번 지도를 그려 산책을 도왔는데 감기가 심해서 사전답사를 금선경부회장이 하게되었다. 중동농협중앙회 주차장에 모인 우리는 부회장님의 정성들여 그려온 지도를 펼쳐놓고 최대 바빠 걷기를 제안 한다. 왜냐하면 추울때는 빠르게 걸어야 열이 나서 덜추울 것 같아서이다. 이번산책엔 공주에서 나고자란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풍성한 산책이다.

공주고 앞에서 발음도 하기 어려운 새주소를 짚어가며 산책을 한다. 공주고뒤편쪽으로 가니 낯선 풍경하나가 보인다. 집한채앞에 이상한 쇠말뚝이 쳐져있다. 길문제로 주민들간 다툼이 있는가 보다. 그집 옆쪽으로 길다란 오르막엔 비슷해 보이는 오래된 집들이늘어서있다. 그길을 조성해보면 좋겠다는 시의원인 회원이 이야기를 건넨다. 하지만 이미 직선도로가 되어있어서인지 아늑한 맛이 없다. 도로 확포장공사가 대부분 이루어져 큰길가에 낡은 집들이 도드라져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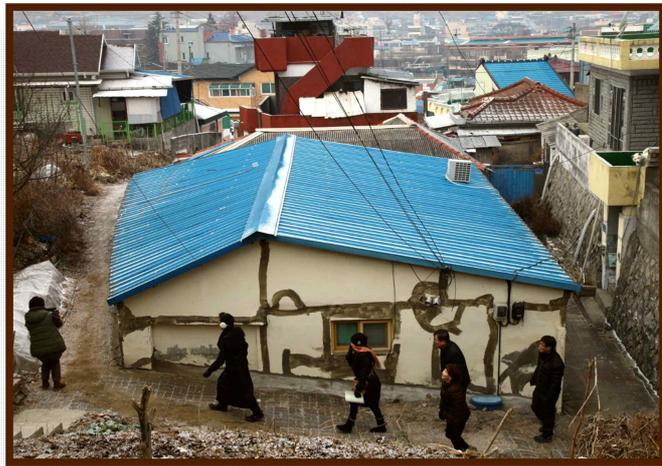
길을걸던 회원들이 우르르 빈집에 관심을 보인다. 예전에화재가 발생한 주택인데 남아있는 구조가 단단해보이고 하숙이나 자취를 했던 곳인지 방들이 많고 재미있는 작은 공간들이 흥미를 끈다. 진찍고 공간에드는 별의 양을 헤아려보기도 하고 단열이 안된 공간이지만 흙집이라 따뜻하며 소유의식을 발동해보기도 한다. 그렇게 아쉬움으로 발을 못 떼는 회원들을 재촉해 공주 고담길을 따라 걷는다. 이곳엔 제법 마당이 넓은 탐나는 집들이 많다. 마당만 보면 텃밭을 가꿀 꿈에 부푸는 나는 사실 무척 게으르고 손에 흙묻히며 놀아본 적도 별로 없는사람이다. 그럼에도 텃밭할 만한 공간만 보면 환상에 풍덩 들어간다.

고담길 따라 쭉욱 골목을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은 복개한 옛우물가 앞에 할매 보리밥집이 있다. 이곳은 하숙하던 그집 그대로 마루에 안방에서 보리밥을 먹는곳이다. 주인의 담백한 손맛이 그리워 많이들 찾는곳이다. 가격도 착하다. 고추장이랑장아찌를 양손 가득 사들고 나오는 수호천사님과영경귀님의 표정이 행복해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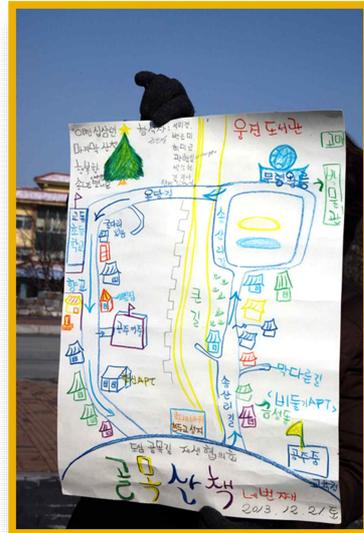
금선경, 석미경, 한승희, 김혜식, 최덕근, 송두범, 안병현, 곽현실, 박영순, 백은미, 박소현, 11명 1월 11일 토요일 중학동을 산책했다.

모두들 하숙집, 자취집이었던 흔적이 많았다. 그동안 많이 변해서 예전기억을 더듬기에 부족한 면이 아쉬웠다. 지명이 특이한곳, 아랫직 골, 고상아리, 쪽짓길 등등

중학동할매 보리밥집에서 사천원짜리 비빔 밥을 맛있게 먹고나니 사람사는 게 다 먹자고 하는 일인 것만 같다. 배부르니 만사가다 귀찮아져 따뜻한 아랫목이불속에 발넣고 낮잠한숨자고 싶어진다. 날씨가 추워도 산책이 즐겁다.



(중학동 산책 자료사진)



다섯 번째 산책 -정월에 걷는 송산리길과 교동길

추운겨울엔 산책을잠시 설까 했지만 눈이 소복하게 내린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도 산책하러 공산성 앞 커피 집에 모였다. 아메리카노의 진한 향기가 마음을 풀어지게 하고 두툼한 외투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온다. 공주중학교앞에서 송산리길로 접어든다. 눈이 큰길은 대부분 녹아서 없지만 지붕에도 길 가장자리에도 새하얀 눈이 쌓였다.

우리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건 어김없이 오래되어 보이는 집들이다. 송산리길은 무령왕릉으로 가는 길이어서 이 좁은 골목의 쓰임에 모두들 의견을 하나둘 내놓는다. 이 골목은 좁다. 차한대 겨우다닐 수 있기도 하지만 회전 이 좁아 낫선 차들이 들어와 흠집을 내고 가는 곳이다. 나도 답사한다고 혼자 차를 갖고 들어왔다 앞으로 뒤로 몇번 한뒤에야 겨우 빠져나와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

사람살이가 다 비슷하니 사는 모습 또한 다같이 보이지만 송산리길은 대문 안이 훤히 보이는 집들이 많다는 게 특이하다. 성큼 발을 들여도될까싶어 한발자국 떴었다가 집 지키는 견공들의 아우성에 깜짝 놀래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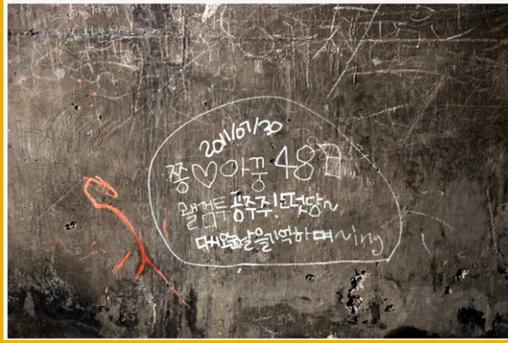
극장간판쟁이 하던 분이 산다는 집의 담벽엔 대나무숲 백호가 거대하게 서있다. 자기모습을 보고 골목을 찾는 이들에게 굴복을 바라는걸까. 눈빛이 형형하다.

송산리 끝자락에서 굴터널 길을 지나교동으로 방향을 트니 마당가득 잔디가 심어진 이층집들이 보인다. 교동 이름부터 예스럽다. 이곳은 예전에 교도소가 있던 곳이었고 황새바위 성지가 있고 향교가 있는 곳이다.

토요일이어서인지 향교가 닫혀있어 안을 보지 못했지만 오월이면 그문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단다.

어느 도시나 교동은 꼭 있다. 그 마을 이름이 지니는 뜻이 비슷해서이다. 공주여중앞쪽으로 골목길로 접어드니 대문 앞 나무가 작지만 매혹적인 집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초록이 한창 일 때는 20대의 나와 같고 지금은 가지만 양상하니 20년 후의 내 모습이려니 생각되어진다.

교동에서 사진 작가 김혜식님과 사진과 골목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공간들을 눈으로 남겨두기엔 아쉬움이 크니 자료로 남겨보자며 또 일 만들자며 의기투합한다. 따뜻한 따로국밥 한 그릇을 함께 하는 우리는 국물 만큼 진하게 살고 싶다.





(송산리길, 교동 자료사진)



사진전, **골목사진전**을 했다. 맨 처음 사진전을 하자고 한사람은 누구였을까? 사진전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맨 처음 사진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할 것인가 모여 회의를 진행했는데 모든 제안들이 술술 나오고 그 제안에 대해 서로 그 역할을 자진해서 맡았다.

사진전을 어디서 할 것인가... 골목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일치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오래된 낡은 집 이야기가 나왔다. 석미경회장과 김혜식작가가 타 지역의 낡은 건물에서 사진전시를 한 예와 그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자 다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평상시 중동농협 뒤 극장골목에 직조공장직원숙소로 사용했던 빈집이 소개되었고 만창일치로 사진전전시장소로 선정했다.

장소섭외를 위해 최덕근팀장과 석미경회장이 집주인을 수소문해 서울에 거주하는 주인에게 취지와 장소대여를 이야기하자 집주인은 무료로사용하도록 흔쾌히 수락했다.

우리의 사진전이 열릴 빈집을 처음 찾은 그날 최팀장, 석회장. 나는 그 안의 오래되고 작은 다락에 마음이 온통 빼앗겼다.

어렸을 적 작은 나만의 비밀공간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이공간은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것 같았다. 낮은 천장이 주는 무게감보다는 갑자기 소인국에 등장한 거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방이 다섯 개 바깥회장실 하나 씻는 공간 하나 이모든 공간을 활용한 사진전 기획회의가 열렸다. 회원들은 낡은 집에 골목사진전을 열게 되는 것에 마음이 들떠있었다. 풍선을 백 개 쯤 하늘로 띄워 보내는 느낌이들 정도였다.

빈집갤러리 사진전의 홍보를 위해 포스터제작 하고 초대장을 준비하고 골목에 대형현수막을 걸었다. 빈집갤러리 앞골목을 잠자리가 놀다 간 골목으로 고승현 야투회장님과 논의해 조성하는 일도 진행했다.

빈집갤러리 가 될 집을 청소하기로 한 일요일 이른 아침에 스무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여 물뿌려가며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버렸다. 송두범. 안병연. 김혜식. 오희숙. 석미경. 금선경. 최덕근. 임미성. 박소현. 박기영. 유영자. 백은미. 윤미라 소중환 사람들이다.

먼지 때문에 몇 번이고 집밖으로 나와 기침을 해대면서도 함께 하는 회원들이 있어 자꾸 웃음이 얼굴에 돌아났다.

청소를 마치고 루치아의 뜰에 앉아 쌀국수로 아침을 하고 향 좋은 차를 마시며 행복해졌다.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열정을 보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고집도 자주 보인다. 그러다보니 서로 독특한 고집끼리 부딪치기도 한다. 나도 늘 조심하려고 해도 불쑥 내 고집 센 자아가 튀어

나와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다.

사진전의 가장 중요한 사진선정에 있어서는 김혜식대표가 하기로 하고사진을 모아 정리와 인화는 박소현이 담당하기로 했다. 포스터인쇄는 오희숙기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얻어 제작을 맡았다. 골목안조성은 고승현님과 석미경회장이 했고, 빈집갤러리 다섯개의 방을 김혜식작가가 산성동을, 오희숙기자가 봉황동을, 임미성기자와 제민네 대표가 대추골을, 씻는공간을 정석임흥도예가와 송인길도예가,작은방을 프랑스자수와 이미정화가가. 마지막으로 입구 쪽 중심방은 골목협 활동소개 공간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금선경. 최덕근 그리고 내가 구성을 담당하기로 했다. 마당끝에 공동화장실에는 화분이 놓여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전체적인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모두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 전체 기획자인 나는 신이 나서 펄펄 날아다녔다.

처음엔 벽지만 떼어내기로 한일들이 하나둘씩 손이 더 가게 되었다. 최대한 빈티지하게 가져간 우리의 빈집갤러리 중심이 가끔 혼란스러울 정도로 주변에서 주문이 너무 많았다.

이준원전시장도 자주 찾아와 전시회 진행에 한마디씩 조언을 해 주었고 공주시역 예술 작가들도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지 준비하는 과정을 묻곤 했다.

벽면에 노랑과 흰색을 섞는 과정에 제일화방운대표가 도왔고 깨진 유리 창문을 염색 조각보가 작가의 고풍스런 손길로 마무리되었다.

골목어귀빈집의 창고 입구를 최덕근 팀장이 나름의 예술성을 발휘해 꾸몄는데 지금도 가끔 그 자리 긴 의자에 앉아그때의 분주함을 그리워 한다. 최팀장은 뭐든 이야기만 하면 똑딱 잘도 만들어 내는 사람이었다. 그의 열정에 늘 감탄했고 일처리능력에 놀라기도 하고 참 우리골목협의 귀중한 보배였는데 아쉬움이 크다.

골목안이 환해졌다. 작은 꽃나무가 가득 해지고 은은한 채색이 이루어진 골목갤러리 가는 길이 아늑해졌다. 골목협의 빈집 갤러리가 오픈하는 날 찾아오는 관람객을 위한 의미 있는 퍼포먼스 계획이 논의되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다시는 해볼 수없는 멋진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잠자리가 놀다 간 골목은 예전에 호서극장이 있던 곳 이었다. 이곳중동농협시지부가 있는 앞에 차부가 있었던 곳이어서 영화를 보다 버스 막차를 놓친 사람들이 하룻밤 잠을 청하던 여관도 있고 밤새 막걸리로 새벽을 기다리던 주막도 서너 개 있던 곳이다. 특히 호서극장은 원형의 2층 구조라 보존가치가 있는 곳으로 다각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엔 수많은 사람들의 야사가 담겨있다. 이층뒷문으로 오르는 계단벽에 대형 천을 걸고 그 아래벽에 극장영화 간판을 50년 경력의 간판쟁이의 손으로 행사당일 그려보는 것을 해보기로 했다.

간판쟁이분을 섭외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지만 다행스럽게 추진되었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추억으로 감동시켰다.

사진전 메인방정리및페인팅 -5월3일토요일오후2시 사위시설공간바닥-금선경씨가작은돌 기증해 깔기로함

전시공간 정리및주변정리 기한- 5월15일까지완료.

초대장 - 인쇄 안 확정, 홍보현수막-제민천입구골목벽설치안 확정. 전기설치10 일까지완료

메인사진인화및글쓰기 - 17일까지. 초대장발송-10 일까지 그외 기타사항 - 참석홍보 부탁

각방마다 사진전시전 방정리및 사진 작업과정 경과보고

임미성 대추골/ 김혜식 산성찬호길/ 오희숙 봉황하숙골목길/ 박소현 백은미 금선경 골목협 진행과정/ 석미경 근대문화길/

박소현- 단체사진 정리와 인화,

금선경- 이튿표 :김혜식,오희숙,임미성,이미정, 한민희,정석임,송인길, (그외 웅진요,프랑스자수,등등 석대표와 상의)

각골목길 지도제작과정 소개,크기와 내용은 백은미랑 상의 ,마인드맵 회원소개 ,사진전 후기담

백은미 -골목협소개, 다음카페, 방명방 문패제작록과 한줄수다판

전기 배선-윤미라 최덕근 홍보 포스터 -고영주 초대장 -석미경/ 기타 생각나는대로



2014.5.23.오전10시 골목사진전이 빈집갤러리에서 열렸다.

루치아의뜰마당에 음향시설이 준비되고 차와다과가 차문화 협회의 도움으로 준비되었다. 금선경 부회장과 김희영(공주시농업기술센터소속)님의 협찬으로 떡과 빵과자카나페가 차려지고 잔잔한 음악이 맑은 날씨와 함께 어우러져 향을 내었다.

사회를 보는 내내 준비하는과정 하나하나가 파노라마처럼 그려졌다.그느낌이 전해지는지 탐색한 이들의 표정도 함께 감격스러워 하는듯 보였다. 인삿말을 전하는 석미경회장의목소리가 떨려왔고 사진전의취지와 전시관람을 소개하는 김혜식대표의 긴장함이 다 감동스러웠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행복한 축하인사가 전해지고 오월의 따듯한 봄햇살에 눈을 반짝이며 기념사진도 찍으며 개막당일의 긴장감이 스르르 빠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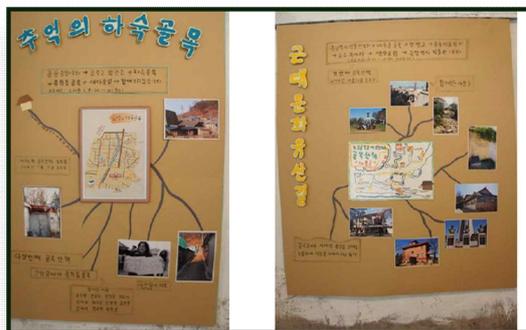
삼일간의 짧은 전시회기간임에도 전국에서 천여명이 찾아와 사진전에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었

고 지방방송에서도 연이어 취재를 해갔다.

우리가 함께 한 골목사진전의 결과는 우리 안에서는 성공으로 결론지었다.

준비과정에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또한 삶의 배움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사람끼리 만나 일을 하다보면 그때마다 서로의견과 입장차이가 생기는 건 어찌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건 욕심을 조금만 덜어 놓았다면 전시회 후 일부 회원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을거라 본다. 무엇보다 그 중재를 못한 책임이 무겁게 느껴진다. 내 쪽이 그뿐임이 한계라 여기고 다음엔 지금보다 나아진 사진전과 도록 발간도 해보았으면 좋겠다.



(사진전 자료사진)



반죽동 산책을 새벽에 했다.

초여름이니 이른 아침에 하자는 의견이 많아 새벽잠 많은데도 참고 일어나 나왔다. 7시에 사대부고 뒷문주차장에서 모였다. 이번산책은 반죽동으로 향해 돌아서 구읍사무소를 지나 시간이 정지된 공간에서 마치고 했다. 반죽동고갯길이 아기자기하니 좋다. 구불거리기 보다는 낮은 오름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봉황산 자락 입구까지 집들이 들어서 있다. 담장위에 꽂아놓은 병조각들이 70~80년대 반죽동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한동안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원도심전형적인 하숙집들이 많다. 특히 사대부고 와 가까워 유난히 텃밭을 가진 마당이 보기 어렵다. 마당끝까지 하숙이나 자취방을 이어댄모양이다. 반죽동노인회관은 높은 오르막 끝자락에 있다. 노인분들이 어떻게 올라오실까 걱정하는 데 저만치서 할머니 한분이 유모차같은 버팀을 이용해 올라오신다. 할머니 이름은 수산나,세례명을 사용하시나보다.

집구경을 하게 해달라는 우리의 부탁을 선뜻 응하신 할머니는 하숙하던 방들도 보여주고 마당에 핀 꽃모종도 캐주셨다.

반죽동높은곳에서 내려다보니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골목도 비좁다는 느낌이 든다. 아마 차는 들어오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걸어다니는 것도 산성동만큼이나 힘들 것 같다. 세무서근처 골목으로 내려 오다 보니 꽤 넓어 보이는 기와집이 보인다. 사전답사때 석회장과 함께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는데 놀랍게도 문을 열고 집을 구경하게 해주었다. 백년이상된 기와집에 살고 있는 주인은 팔십이 넘은 분인데 참 고우셨다.

당일엔 문이열리지 않아 보지 못했다. 그대신 장수갈비 내부를 구경했다. 일본식 가옥구조가 인상적이다.

구읍사무소 뒤 시간이 정지된 공간에 모여 산책을 정리하고 분식집으로 몰려가 김밥과 어묵으로 함께하는 아침밥을 먹었다. 참 좋다.





(반죽동 자료사진)



중동골목의 역사를 고도와연결해 생

각해보는 의미있는 산책을 했다.

여름비가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우산을들고 만났다. 중동 중심에는 충남역사박물관 관과 중동성당이 있다. 그 두건물이 경관의 가치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중동성당계단을 올라 백년 넘게 그 품을 넓혀온 느티나무 아래에서 공주중동도심을 바라보니 낮은 건물들 사이로 여름 숨이 여유롭게 불어온다.

핏줄처럼중심가를 향해난 작은 골목들은 여러해 동안 추억을 만드는장소였다. 지금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나도 남편과 처음손을 잡은곳이 이중동골목 어디쯤이었다. 골목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잡았던손을 재빨리 놓아버렸을 때 그아쉬움이 얼마나컸던지. 아슬아슬한 이십대의 연애감정을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십년은 젊어진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 중동 골목에는 한때는 북적거리던 동네였음직한 집들이 몇채 남아있지만 대부분 그 명성만 남기고 지금 허허롭다.

길을 건너 우체국 관사 옆골목을 지나 중동초 뒷길을 따라 걸었다. 저 멀리 선교사의 집이 언덕에 홀로 서있다. 저언덕의 집은 초기선교사가 기거하던 곳이었는데 천사가 사는 집이라고 할 정도로 근대식건물이 많은이들의 열망이 되었다.

시간이 정지된 공간에서 다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이곳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제안들을 했다.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일들 다양하게 해보자고 회원들은 여름 한낮의 태양같은 열정을 내뿜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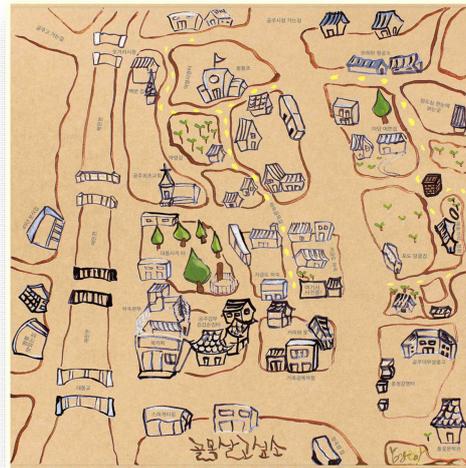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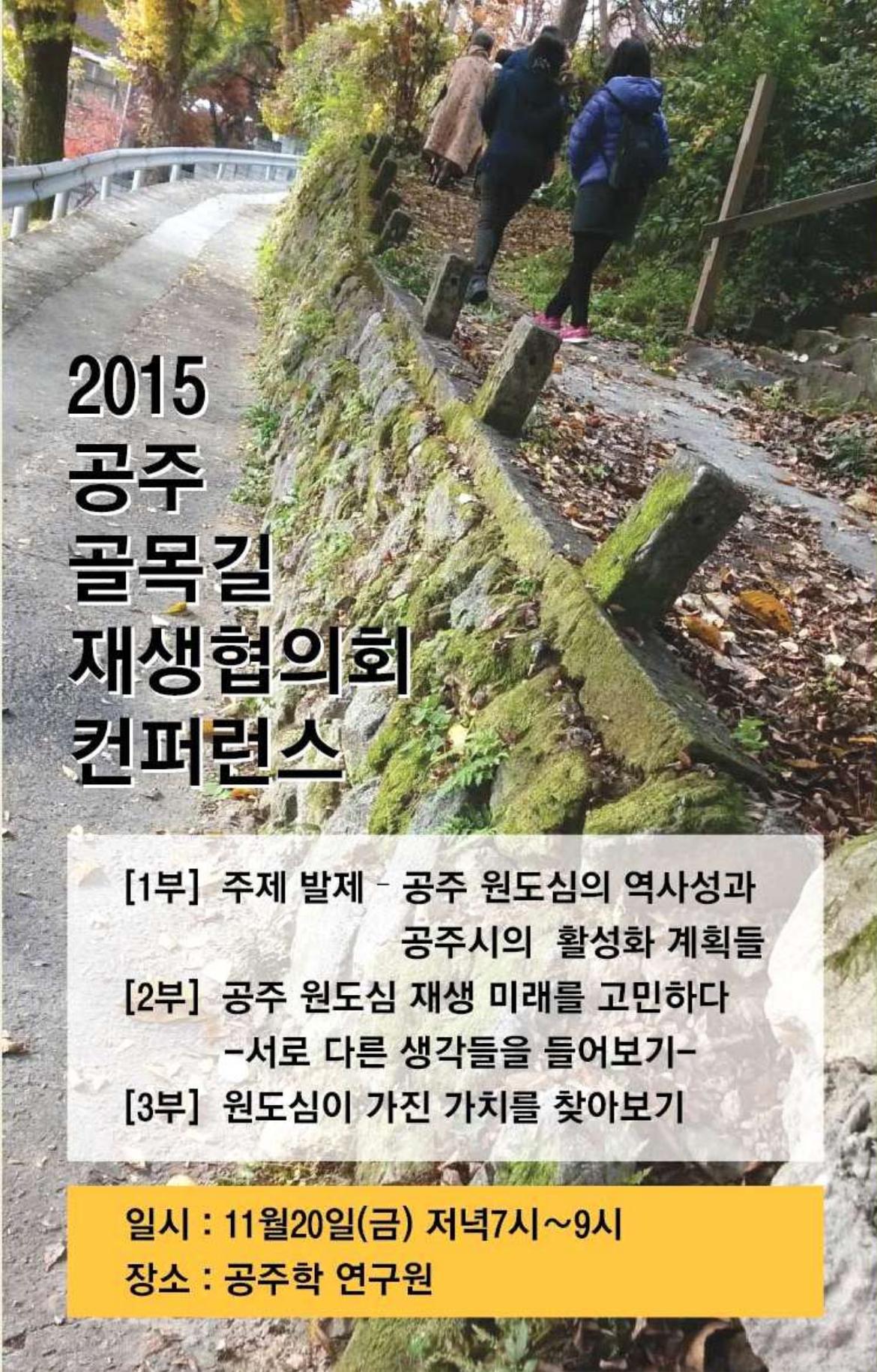
(중 동 산 책 자 료 사 진)



(금성동배수장:골목협회원들문화를만들다)



(2015년 활동:골목지도제작과 골목티셔츠 제작)



2015 공주 골목길 재생협의회 컨퍼런스

- [1부] 주제 발제 - 공주 원도심의 역사성과
공주시의 활성화 계획들
- [2부] 공주 원도심 재생 미래를 고민하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기-
- [3부] 원도심이 가진 가치를 찾아보기

일시 : 11월20일(금) 저녁7시~9시

장소 : 공주학 연구원

공·주·원·도·심·재·생·의·방·향·성·을
지·나·은·시·간·과·앞·으·로·의·2·0·년·을
고·민·하·다



발제1 원도심의 가치는 무엇인가. 왜 보존해야하나

-공주골목길재생협의회 사무국장
백은미



제가 공주의 원도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주에 직장 때문에 내려와 여기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동안에도 늘 다니던 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 먼 곳에 갔다 공주 표지판만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왠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아프던 머리로 스르르 나아지고 그랬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중동에서 출발한 골목협의회에 들어가 산책을 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책을 한 달에 두번 정도 진행해오고 있는데 대부분 동선을 정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진행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그때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바쁘게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골목담장의 모습, 바닥돌, 지붕모양, 오래된 나무들, 그 골목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표정들 그런 것들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져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책 때 함께 하는 분들이 저랑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걸 보면서 이공주의 원도심이 가지는 뭔가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걸 찾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공주도시계획주민참여활동의 일환으로 반죽동 중학동 주민들 50여분을 대상으로 중학동 사무실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질문1 “여러분들에게 공주는 어떤 곳입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고향, 살아온곳, 내삶이 있는곳 등등 느낌들은 참 따뜻하더라구요.

질문2 “그럼 당신의 살고있는 이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대답은 당연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개발을 원하셨습니다. 집이 헐리고 삶의 공간이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려면 일단은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것은 자손들이 살러 들어오지 않는 집을 어떻게 하느냐야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건축물인 집의 건물 가치가 없다 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집들이 대부분 막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나마 좋은 건물들은 다 허물어져 가거나 사라졌습니다.

서울 북촌처럼 자랑 할만한 양반한옥도 없습니다. 전주처럼 한옥을 자랑할 만한 공간도 없구요. 왜냐하면 공주대 지수걸교수에 의하면 공주는 주로 중인계급의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고 양반이나 가문이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유구,노성 계룡뜰에 넓은 한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대말에 지어진 그나마 가치 있는 건물들은 자손들의 부실로 인한 건 지 시대탓인지 대부분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택 음악회 그런것을 할 곳이 없다는 아쉬움이 많죠.

그렇다면 원도심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거죠. 우리가 늘 고민하게 만들고 종종 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일수 도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한 공감은 스스로 공감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공주 느낌이 참 좋은곳이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같은 편안함이 담겨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자랑하듯이 하는 말 공주 우리 동네를 묘사하면 하나도 꾸미지 않은 맨 얼굴의 내 모습 같다. 라는 건데요. 뭔가 첫눈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갖고 있는 게 참 많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공주에 는 공간이 담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을 내보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고도로 지정되어 대우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높은 건물이 도시전체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 제민천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의 곡선을 다 잃어버려서 통곡하고 싶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다시 되돌려볼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이 충남에서도 최고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즈넉함, 시간의 속도가 느리게 흐를 것만 같은 편안함 그런 게 도시전체를 감싸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발전이 덜 된 덕을 본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싫다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보존해야하는 가치를 공감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역사성 입니다.이 컨퍼런스의 가장 핵심도 이 부분인데요.

공주 원도심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각종 강좌를 통해 접해보셨겠지만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며 조선시대 충첩 감영이 있던곳이었고 근대에는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까지 있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더구나 교육도시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충남의 교사들을 길러낸 공주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도 구역, 문화재 구역,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표조사’라는 걸 합니다.2008년 공주시는 흥익대에 용역을 의뢰해 이조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공주 원도심 특히 중동 봉황동중학동 일대가 조선시대 기본적으로 그어지는 가로도가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유일하다라는 소리까지 전해들은 바 있는데 이 것은 더 확실히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야 할듯합니다. 이게 만약자료로 증명만 된다면 지금처럼 도시계획정비로 마구잡이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는것은 나중에 이 도시개발 사업담당자는 책임을 추궁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도 공주는 대구보다 코스의 동선이 훨씬더 짧을 뿐만 아니라 동선(動線) 내의 문화유산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구보다 훨씬 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의 감리회공동체 인근에는 △백제박물관(일제의 백제만들기, 무령왕릉 발굴) △앵산공원('벚꽃의 나라' 공주, 신사터, 4·19기념탑, 황인식기념비) △대추골(6·25전쟁시기 학살터) △국고개(비선거리, 효자이복) △대통다리(홍예교, 중수비) △약전골목(광창당) △관아대로(호서극장 건물) △충청감영터(건물 초석, 포정사, 선화당 건물, 신사터) △큰샘골(궁정, 홍원표 고택) △풍덕원(마곡사, 갑사, 고아원, 선행비) 등등 볼거리와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문화유산이 즐비한곳입니다.

공주지역의 향토사학자 윤여헌선생님을 얼마 전에 찾아보면서 구도심에 대한 역사성을 짚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더니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은 구도심은 감영과 목사터가 있던곳이니 . 구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고증을 통해 복원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복원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원을 하면 구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

또한 봉황초등학교 뒤편 골목이 약령시장 터인데 . 공주가 대구와 함께 1년에 두 차례 약령대시(藥令大市)가 열려 성황을 이뤘음을 전해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하의 기록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주 약령시의 역사는 꽤 오래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약령시의 개장이 효종(1649~1959)때부터라고 하니, 공주 약령시도 17세기 중엽부터 확립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봉황동에 침술로 유명했던 박태연·백창기씨, 산성동의 권재수씨 그리고 중동의 광창당 한약방 김락현씨 등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분들이 이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대부고자리에는 '선화당'을 중심으로 양쪽편 동쪽에는 관아 건물이 즐비했고, 봉황산 남쪽으로도 '진리청(鎭吏廳)', '영선고(營繕庫)'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령시장은 관아의 외곽지대에 해당되는거죠. 지금은 직선도로가 곧게 뻗어 있지만 옛날에는 구불구불한 골목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 봉황동 장대1길2길제 민1길 등은 우리가 말하는 골목 3미터 이내의 좁은 길이 보존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의 역사성은 근대사에서 우리서민들의 삶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소방도로법으로 이제 3미터 이내의 도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곳이 유일하게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골목처럼 길게 골목으로 계속 이어진 길은 없어요. 그리고 대추골은 가을이 깊어 그늘진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옥룡동은 산성동과 함께 공산성과 중동성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낮게 드리워져 있고 시장상인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고갯길들이 있고 그래서 이곳은 서민의 삶의 역사성을 가진 곳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목산책을 주제로 한 재생의 방향성을 잘 잡아야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생활사 서민 삶의 역사성을 자료화하는데 있어서 골목의 이야기자원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골목길 이야기자원의 수집과 활용, 전문가들보다는 시민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골목협 활동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공주의 경우 구도심 내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공주 골목길의 '정체성'이나 '원질서'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소리 소문 없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도심실거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집을 이전하길 원하시기도 하고 행정에서도 눈에 막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려합니다. 빨리 먹는 밥이 체하기 마련인데 어찌 보면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집들이 골목의 곡선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골목협에게 니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라는 못 박는 소리도 자주 듣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마냥 피할 수는 없고요 .상생하는 협의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공주시는 각각의 사업 과정에서, 공주 구도심 내 골목길을 어떻게 '보존·육성'하고 '재생·지원'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닐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어서 잠이 안 오고 고민됩니다.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로 찾는 '백제 관련 역사문화 유산' 뿐만 아니라 원 도심에 대한 관심은 높인데 정말 잘 해야지 안 그러면 큰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몰라서 걱정입니다.

골목협일이 이익이 생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님에도 자꾸만 서로 이권으로 보여 지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후대에게 그때 왜 지켜내지 못했느냐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최선일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함께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여겨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했습니다. 그 초심이 무엇인지 다시생각해보는 자리도 되었으면 합니다.

(ppt 자료첨부)

